

“오직 주를 위하여”

(고린도전서 6:17,19-20)

우리의 몸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내가 어린아이인지,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내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몸의 얼굴은 “나”를 명확하게 드러내 줍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인격과 성품까지도 드러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 몸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내 몸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바울은, 우리의 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이 말하는 “몸”은, 온갖 죄의 성향을 따르려는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몸은,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성향을 따라 죄를 짓고, 죄에 더럽혀진 몸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온갖 죄악의 성향을 따르려는 육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그래서 죄에 더럽혀진 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된 몸을 가졌는데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 몸이 이미 거룩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를 세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 절에서,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 몸도 이미 거룩하여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1 장에, 감람나무(올리브) 접붙임 비유가 나옵니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떼어서, 그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면 그 가지는 이미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바울은 안타까워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거룩하여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이미 거룩하여졌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 몸이 이미 거룩하여졌다고 말한 이유는 19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건물을 생각해 보면, 교회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때문에, 이곳을 거룩하다 말하는 겁니다. 깨끗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배받으시기에 거룩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해서 거룩한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이 몸도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하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앞서 고린도전서 3 장 16-17 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믿는 우리의 몸은, 이미 성령으로 거룩하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거룩한 이유는 20 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루고 사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엄청난 값을 치루시고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삼으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큰 값을 치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의 행위가 깨끗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라는 큰 값을 치루신 은혜로, 우리의 몸은, 이미 거룩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몸은 거룩하여졌는데, 그럼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가지를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15 절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이기때문에,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데, 혹이라도 주님의 몸에서 떼어서, 다시 정욕과 욕심의 죄에게 붙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 몸을 주님에게서 떼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두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하신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20 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2 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더 이상, 그 몸으로, 육체의 욕심과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그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누구를 위하여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 있나요? 아니면, 오직 주를 위하여 있나요? 죄로 인하여 질그릇같은 몸인데 그런 내 몸을, 하나님께선 전적인 은혜로, 이미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살면서 이 몸을, 육체의 욕심과 죄에 붙이지 마시고, 다시는 죄의 도구로 이용당하지 마시고, 나의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속회자료]

- 찬 송**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423 장 먹보다도 더 검은)
- 대표기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 말씀읽기** 고린도전서 6:17, 19-20 절을 읽습니다.
- 말씀묵상** 본문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10 분)
- 말씀요약** 웹사이트에 있는 말씀 요약을 읽습니다. (10 분)
- 말씀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 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 분 이내)
1. 하나님은 우리의 몸은 육체의 성향을 따라 정욕과 욕심의 죄를 지으며 삽니다. 지난 주중에 “이것은 죄인데.. 또 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진솔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이야기를 나눌 때는 작은 것이라도 서로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의 몸이 거룩하여졌습니다. 그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지금 나의 몸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 찬 송**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320 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 주기도문**

